

얼굴을 붉히는 여주인공: 『기쁨의 집』속 수치심을 느끼고 수행하기

김 제 인

“그 아가씨는 평소에는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예처럼 죽도록 노력하지만, 정작 추수를 거두어들여야 할 때가 되면 늦잠을 자버리거나 소풍을 떠나버리기 일쑤라니까요.” ... “때로는 나는 그게 그저 변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애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환멸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릴리를 이렇게나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녀를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면모 때문이죠.”

(she works like a slave preparing the ground and sowing her seed; but the day she ought to be reaping the harvest she oversleeps herself or goes off on a picnic.” . . . “Sometimes,” she added, “I think it’s just flightiness – and sometimes I think it’s because, at heart, she despises the things she’s trying for. And it’s the difficulty of deciding that makes her such an interesting study; Wharton, *House* 189)

피셔 부인(Mrs. Fisher)의 말은 『기쁨의 집』(*The House of Mirth*)의 여주인공 릴리 바트(Lily Bart)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진단한다. 결혼 시장의 끝머리에 서있는 스물아홉 살의 릴리는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기쁨의 집』은 릴리의 “버려진 기회들”(discarded opportunities; 189)과 결국에는 그것들이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피셔 부인의 말대로, 그녀의 “단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선택들은 그녀를 『기쁨의 집』 비평가 안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왔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래

왔듯이, 이 글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릴리의 선택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왜 릴리는 사교계의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완벽한 여성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실패하는 것일까? 왜 릴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마련해온 기회들을 늘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손으로 ‘버리는’ 것일까? 무엇이 릴리의 ‘연기’이고, 무엇이 릴리의 ‘진심’일까? 릴리가 원하는 척하는 것과 정말로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이 글은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릴리의 ‘홍조’를 들여다본다. 릴리는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히는 기술”(the art of blushing at the right time; 6)을 가졌으며, 그것이 릴리가 다른 여성들보다 자신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릴리가 피쳐 부인과 같은 성공적인 “골드 디저”(gold digger; 90)가 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녀의 붉어진 얼굴에 있다. 릴리는 알맞은 때에만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얼굴을 붉혀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붉힌다. 릴리는 ‘스스로의 붉어진 얼굴에 얼굴을 붉히는’ 여성이며, 릴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자, 그녀가 이 세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소설 내에서 릴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바로 로런스 셸든(Lawrence Selden)이다. 릴리가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들은 셸든이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면박이나 창피를 줄 때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이 속한 세계를 셸든의 눈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이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릴리가 수치심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이 그녀를 어떤 인물로 만들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찍이 이 소설의 수치심에 주목했던 레브 라파엘(Lev Raphael)은 릴리의 수치심을 그녀의 일생을 지배하는 “탈출할 수 없는 저주”(an inescapable curse; 273)로 규정한다. 릴리는 가난이라는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지만, 그 결혼에 도달하는 방법 또한 그녀에게는 수치스러우며, 그것을 감수하고 안정적인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수치스러운 삶이 된다. 따라서 릴리는 수치심으로부터 평생 탈출하고자 하지만, 오직 죽음만이 그녀를 수치심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책의 제목 『이디스 워튼의 수치심의 포로들』(*Edith*

Wharton's Prisoners of Shame)이 잘 보여주듯이, 라파엘은 릴리 바트를 “수치심의 포로” 중 한 명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글은 릴리를 수치심의 ‘포로’ 혹은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여주인공, 혹은 “그녀가 사는 사회 혹은 그녀 자신이 가진 약점들의 피해자”(the victim of either her society or her own weaknesses; Chambers 51)로 읽는 해석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릴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아가 “수행”함으로써 그녀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1. 좋아할 수 있는/없는 릴리?: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히는 기술”

스물아홉 살의 릴리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능력”(powers; 49)을 갖추었다고 서술된다: “그녀의 미모는 미숙한 여자의 손에 들어갔다면 사라져버렸을 덧없는 소유물이 아니었다. 미모를 한층 고양시키는 그녀의 기술과 거기에 쏟는 애정,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듯이 보였다”(Her beauty itself was not the mere ephemeral possession it might have been in the hands of inexperience: her skill in enhancing it, the care she took of it, the use she made of it, seemed to give it a kind of permanence; 49). 사교계에서 릴리는 결혼 적령기를 약간 지나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미모와 능력의 결합으로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다.

릴리가 사교계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장면은 거스 트레너(Gus Trenor)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털어놓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남녀 간에 일종의 치밀한 “게임”(the game; 85)으로 그려진다. 릴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어필하고 트레너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트레너가 이미 경계하고 있는 피셔 부인과 같은 “뺨고 뺨은 모사꾼”(battered wire-puller; 82), 혹은 “전문적인 식객”(professional sponge; 84)의 인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 결정적으로 트레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고민거리를 가져와서 그의 가장 고결한 연민에 호소한 소녀”(a girl who appealed to his highest sympathies, and who brought her troubles to him with the

trustfulness of a child; 84)의 모습이다.

릴리는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어렵게, 부끄러워하면서 털어놓음으로써 “시련에 처한 사랑스러움”(loveliness in distress; 84)을 연출한다. 그녀는 “약간 부끄러운 듯이 머뭇거리며 말을 멈추”(paused with a slight falter of embarrassment; 83)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sighed more deeply; 83)며 말하고, 이것은 트레너로 하여금 “그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보다 그녀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making him feel that he understood her better than her dearest friends; 84) 인상을 심어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련에 처한 어린 여자의 고백에 트레너는 “그녀를 보호”(to protect her; 84)해야 한다는 기사도적인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본심을 숨기고 남성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독자로서 좋아하기 힘든, 릴리의 ‘요부’(coquette) 같은 모습을 부각한다. 릴리가 속한 상류층 사교계에서 경제적인 기반이 충분치 않은 미혼 여성의 권력이 남성들을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릴리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피셔 부인의 방식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동요하는”(disturbed by the remembrance of Mrs. Fisher's methods; 83) 트레너가 보여주듯이, 이 세계의 남성들은 더 이상 마냥 순진하게 여성들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성들은 늘 남성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한다.

핵심은 남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밀감(intimacy)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이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은폐하는 데에 있다. 릴리가 트레너를 움직이는 데에 성공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그에게만 털어놓음으로써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자신에게는 매우 부끄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자신은 “맑고 닳은”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즉, 사교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릴리가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자신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사교계 여성들의 생존 전략을 ‘아직’ 배우지 못한 순수한 소녀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홍조(blush)라는 몸의 기호이다. 17세기 이후로 서정시 및 서사시에서 홍조는

“수치심, 욕망, 고양된 정신, 악행”(shame, desire, high spirits, and vice; White 281-82)과 연관되었으며, 18세기 말에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로서 “정숙한 아름다움의 징표”(a mark of modest beauty; 282)가 되었다. “아마도 가장할 수 없는 유일한 표정이기에, 홍조는 응접실과 감성 소설 속 인물들의 핵심적인 미덕이었다.”(Perhaps the only expression that could not be feigned, blushing was a key to the virtue of characters in drawing rooms and sentimental novels; 282) 젊은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무리’(finishing touch)에 해당하는 홍조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릴리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그녀의 “능력”을 대표한다.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은 소설의 1장에서부터 릴리가 가진 홍조의 능력과 그것이 로맨스 시장 안에서 가지는 가치를 부각한다. 기차역에서 릴리를 만난 셸든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할 때, 릴리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승낙한다. 이 때, 셸든의 눈에 릴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기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still had the art of blushing at the right time; 6; 필자 강조) 여성으로 비추어진다. 즉, 그의 관점에서 릴리의 홍조는 그녀가 원하는 때에, 그녀의 의지로 자신의 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예술 작품이다. “가짜로 꾸며낼 수 없는 반응”(a reaction that cannot be faked; Probyn 2)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온 홍조를 “알맞은 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릴리의 기술은 홍조의 진위성을 위협한다. 릴리처럼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조를 “가짜로 꾸며낼 수 있는” 여성은, ‘진실하게’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하는 감성 소설의 “정숙한” 여주인공들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부상하는 19세기 감성 소설의 새로운 인물 유형이다.

그렇다면, 홍조를 꾸며내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 릴리의 이러한 능력은 소설 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셸든이 보여주듯이, 이 세계의 남성 인물들 또한 이미 어느 정도는 홍조가 꾸며낼 수 없는 신체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로맨스 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¹⁾ 그러나 여

1)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셸든이 이 때 릴리가 보이는 홍조를 오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된다. 릴리가 셸든의 제안에 얼굴을 붉히는 이유는, 예컨대 트레너와 같은 인물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연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트레너는 릴리가 보여주는 홍조의 의미를 단단히 오해한 채 그녀를 폭력적으로 비난한다. 릴리가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즉, 릴리의 ‘홍조’가 홍조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믿었던 트레너 그녀를 찾아와 협박한다: “당연히 이제 당신은 무얼 원했는지 알겠어. 내 아름다운 두 눈동자를 쫓는 것은 아니었겠지. 하지만 릴리 양, 당신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해”(Of course I know *now* what you wanted—it wasn’t my beautiful eyes you were after—but I tell you what, Miss Lily, you’ve got to *pay up* for making me think so—; 145; 필자 강조). 트레너는 “이제야 릴리가 부끄러운 비밀을 통해서 만들어낸 둘 사이의 친밀감 뒤에 있는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고 말하며,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로맨틱한 의도로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믿도록 ‘만든’ 그녀의 기술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목으로 만들고 있다.

즉, 트레너의 입장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성적인 요구와 뒤이은 유사 강간은 릴리의 ‘요부’같은 행동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다. 트레너는 절대로 가장할 수 없는 신체적 반응인 홍조조차 가장할 수 있게 된—진실과 가장, 혹은 겉과 속을 구분할 수 없게 된—여성성을 통제하고 제압하고자 하는 남성의 불안을 보여준다. 이 장면의 엄청난 폭력성과 릴리가 느끼는 공포는 독자가 트레너와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릴리의 (좋아하기 어려운) “능력”을 다르게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페미니즘 및 퀴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요청에 응답한다. 이들은 릴리의 “능력”을 젠더 수행(*gender performance*)으로 보며, 오히려 릴리의 수행은 ‘진정한 여성성’과 같은 성적인 본질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부장제나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릴리는 ‘결혼할 만한’(marriageable) 여성의 자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녀가 사교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철저하고 탁월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캐서린 조슬린(Katherine Joslin)은 릴리가 여성의 삶에서 결혼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결혼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

후술하듯이 셸튼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성에 대한 완전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기에 “수행성 이론의 완벽한 여주인공”(the perfect heroine for performative theory; 99)이라고 평가한다.

로리 해리슨-카안(Lori Harrison-Kahan) 또한 신여성, 부유한 유대인 등 새로운 집단들이 부상함으로써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을 가로지르는 정체성의 “모호한 구성”(ambivalent construction; 41)이 생겨난 19세기 미국 사회 내에서 밀리는 사교계 숙녀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상류층 백인 여성성’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들을 배제한다고 설명한다.²⁾ 밀리는 “진정한 여성성이라는 신화”(the cult of true womanhood), 즉 “완전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여성스러움”(womanliness [which] had been so profoundly naturalized)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도, 그녀가 수행하는 ‘상류층 백인 여성성’은 자신과 똑같이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다른 정체성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not *choosing* to perform another identity; 36)하지 않는 거티의 삶이나, 인종적 타자에 해당하는 유대인 로즈데일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특히 해리슨-카안은 밀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진실(truth)과 허구(artifice)라는 효과적인 이분법적인 틀을 제시하며, 작중 유대인인 로즈데일만이 밀리의 수행이 이 두 개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진짜 릴리 바트”(real Lily Bart)를 보고 싶어 하고, 릴리에게서 “모든 진실”(whole truth)을 요구하는 거티 패리쉬(Gerty Farish)나 셸든(Lawrence Selden)과는 달리, 로즈데일은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 곧 허구”(the truth of identity is artifice; 45)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실이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그[로즈데일]는 허구가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누군가가 수행하는 정체성 혹은 ‘무대 위 대사’야말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At the same time that he [Rosedale]

2) 로즈데일이 릴리의 뒤늦은 청혼 승낙에 난처해하며 “당신과 결혼한다면 내 스스로를 영원히 위태롭게 만들 테요. 내가 지금껏 노력해온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겠지”(if I married you now I'd queer myself for good and all, and everything I've worked for all these years would be wasted; Wharton 256)라고 답하는데, 이에 착안해 카안은 ‘퀴어하게 만들다’(queer)라는 단어를 고정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recognizes that the truth is artificial, he acknowledges that artifice is truth and that the identity one performs, or the 'stage-talk' one speaks, is the closest one gets to realness; 46). 해리슨-카안이 이해하는 로즈데일의 입장이야말로 자신과 조슬린을 포함한 페미니즘/퀴어 비평가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취하는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관점—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등 어떠한 범주에 있어서도 본질주의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체성은 수행과 반복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한다.

그러나 해리슨-카안의 글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우선, 릴리가 로즈데일의 인종적 타자성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 혹은 '패닉'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녀가 로즈데일의 청혼을 승낙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안타까워하듯이 “여성화된 유대인과의 연대가 그녀를 위태롭게(퀴어하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기”(she fears that an alliance with the feminized Jew will queer her; 47)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릴리가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로즈데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릴리와 로즈데일은 진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한 입장 자체—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은 불안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입지가 굳건하지 않은 '퀴어한 약자'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안정화해야한다는 인식—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리슨-카안은 로즈데일, 거티와 셸든, 심지어는 네드 반 알스타인(Ned Van Alstyne)과 같은 사교계의 남성들이 릴리의 수행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반면, 릴리가 스스로의 정체성, 즉 여성성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히는 기술”로 대표되는 그녀의 “능력”을 거스 트레너는 강간 시도로 응징했으며, 퀴어 비평가들은 “수행성 이론의 완벽한 여주인공”의 힘이라고 찬미했다. 사실, 릴리의 수행이 정체성의 본질을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여성성의 신화”를 무너뜨린다는 평가는 그녀의 사후(post-mortem)에나 가능한 평가이다. 릴리의 수행이 얼마나 혁신적이며 저항적인지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릴리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실패하며 목숨마저 잃게 된다. 릴리가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우리는 릴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녀가 소설의 세계에서 왜 생존할 수 없지 알 수 없다.

2. 실패한 “골드 디저”: 스스로의 얼굴 붉힘에 얼굴 붉히기

릴리를 “수행성 이론의 완벽한 여주인공”으로 평가하고 찬양하는 비평가들과는 다르게, 정작 릴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그리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주디의 부탁으로 트레너를 마중하러 가기 전, 릴리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자신은 “거의 형제와 같은 친밀함을 가진 관계”(a relation of almost fraternal intimacy; 82)에 ‘순수하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제의 정 따위로 거스 트레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릴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황의 상스러움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릴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이러한 까다로움은 거의 도덕성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꼼꼼히 살펴볼 때, 그녀가 애써 열지 않는 닫힌 문들이 분명 있었다.

(In her inmost heart Lily knew it was not by appealing to the fraternal instinct that she was likely to move Gus Trenor; but this way of explaining the situation helped to drape its crudity, and she was always scrupulous about keeping up appearances to herself. Her personal fastidiousness had a moral equivalent, and when she made a tour of inspection in her own mind there were certain closed doors she did not open; 82)

릴리 자신 또한 트레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동원되는 자신의 능력이 “형제의 정”에 호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녀는 소녀다운 여성성의 수행을 통해서 트레너의 마음(남성의 ‘보호 본능’ 혹은 이성애적 욕망)을 자극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해버린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지키는 것”, “애써 열지 않는 닫힌 문”은 릴리 자신 또한 그것이 꾸며낸 수행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트레너뿐만 아니라 릴리조차도 자신의 행동이 “[피셔 부인과 같은] 방식

으로 돈을 버는 여자들”(women making money in this way; 82)과는 다르다고 믿고 싶어 하며, 이것이 릴리를 (그저 순진한 소녀를 단지 ‘연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순진한 소녀처럼 보이도록 하는 구석이 존재한다. 주디가 피셔 부인에 대해서 “그녀는 정말이지 완벽한 독수리 같아. 게다가 도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그 여자는 항상 거스가 자기를 위해서 투기하도록 만들지만, 돈을 잃게 되면 안 폰도 갚지 않을 게 뻔해”(She’s a perfect vulture, you know; and she hasn’t the least moral sense. She is always getting Gus to speculate for her, and I’m sure she never pays when she loses; 86)라고 험담하자, 릴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면서도 자신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당혹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상황은 꽤나 달랐다”(Miss Bart could shudder at this state of things without the embarrassment of a personal application. Her own position was surely quite different; 86)고 생각한다. 정말로 릴리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그녀는 피셔 부인과 다른가? 왜 릴리는 자신이 피셔 부인과 다르다고 믿는 것일까?

물론, 누가 봐도 릴리는 피셔 부인과 같은 “완벽한 독수리”는 아니다. 릴리를 20세기 초반에 떠오른 문화적 아이콘인 ‘골드 디저’의 전사(前史)로 보는 클라렌스 슬라벤스(Clarance Slavens)에 의하면, 릴리 바트는 “로렐라이 리와 그녀의 뒤를 이은 골드 디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 실패한 골드 디저”(a failed gold digger . . . [who] would probably seem laughable to Lorelei Lee and the gold diggers who followed her example; 90)이다. 왜 그녀는 피셔 부인, 혹은 다음 세기의 로렐라이 리와 같은 ‘성공한 골드 디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슬라벤스는 릴리가 몰락했지만 부유한 가정환경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애초에 부의 세계 밖에 있던 노동자 계급의 ‘골드 디저’들과 다르게 “부유한 상류층 세계 밖에서 기능하고 부자와 결혼할만한 풍부한 기회를 활용하는 게 불가능하다”(She is *unable* to function outside the world of the wealthy and *unable* to bring herself to take advantage of the ample opportunities provided for her to marry into wealth; 91)고 설명한다.

와이-치 디목(Wai-Chee Dimock) 또한 릴리가 속한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적 교환의 법칙을 들어 릴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아무도 교환에서 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환율을 자

의적으로 책정하고 지불의 의무로부터 스스로를 면책하는 사회에서 릴리는 혼자서만 열심히 빛지고 그 빛을 액면가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인물이다. “지불하지 않는 것이 규범이며, 규칙 위반만이 유일한 순응인 체계”(a system in which nonpayment is the norm, in which violation is the only mode of conformity; 787)에서, 그녀는 남들처럼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디목은 이미 더럽고 치사한 시장 경제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정거래의 원칙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릴리의 행위를 “혁명”(rebellion; 783)이자 “저항”(protest; 789)이라는 단어로 평가한다. 그러나 릴리의 “도덕적 승리”(moral triumph; 789)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며, “사적 도덕성은 교환 체계에서 결국은 무방비해진다.”(Private morality is finally defenseless against an exchange system; 790) 즉, 디목의 설명대로라면 “돈을 잃게 되어도 한 푼도 갚지 않을 게 뻔한,” “도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피서 부인과는 달리, 릴리는 돈을 잃게 된다면 잃은 만큼, 빛을 진다면 빛진 만큼을 정직하게 갚으려고 하는 우월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실패하는 인물인 것이다.³⁾

릴리가 “실패한 골드 디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밖을 경험하거나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상류층 출신이라는 릴리의 성장 배경을 지목하는 슬라벤스나, 자신이 이미 몸담고 있는 시스템의 불공정한 규칙들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우월한 도덕성을 지목하는 디목의 설명은 모두 불만족스럽다. 만일 그녀가 정말로 부유한 어린 시절 때문에 부자가 아닌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더라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29

3) 디목은 릴리의 도덕성의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릴리의 도덕적 능력이 그녀의 최종적 승리”(Lily’s moral insight is her ultimate vindication; 792)라고 보는 이전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과는 달리, 그는 작품에서 도덕성은 “초월적인 언어를 제공하지도, 존재의 대안적인 방식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시장의 원칙들에 흡수된다”(provides no transcendent language, no alternative way of being, but feeds directly into the mechanisms of the marketplace; 790)고 주장한다. “릴리의 혁명은 초월적인 도덕적인 원칙에 호소하고 그것을 전제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Lily’s rebellion, which appeals to and presupposes a transcendent moral order, is doomed for that very reason; 790) 그러나 이 글에서는 릴리가 기회들을 버리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도덕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살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미모와 능력을 활용해서 피셔 그라이스 같은 부자와 일찍이 결혼하는 데에 성공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또한, 릴리에게 다른 인물들보다 더 우월한 도덕성이 있다고 보기에 그녀는 늘 마지막 순간에서야 발을 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자신이 그토록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피셔 부인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릴리의 “능력”이 피셔 부인의 수법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한 수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디목의 주장과는 다르게, 릴리는 자신의 행동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릴리가 도덕적이라고 보기에 그녀는 실제로 많은 유혹에 넘어간다. 셀든과의 대화 끝에 편지를 불태우기는 하지만, 릴리는 이미 로즈데일의 ‘부도덕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몰락한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편지를 활용하려고도 한다. 만일 그녀가 정말로 다른 인물들보다 우월한 도덕성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골드 디거”다운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로즈데일의 제안을 끝까지 일관되게 거절했을 것이다. 즉, 릴리의 도덕성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지에 대한 이성적 판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릴리는 천박하고, 상스럽고, 부도덕하고, 노동자 계급의 여성이나 해당하는 일들—여성의 “능력”을 활용해서 남성들을 조종하는 일, 편지와 같은 사적인 물건을 통해서 남을 헐박하는 일 등—에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상스러움을 덜어내는”(diminish its indelicacy; 82) 일, 실제로는 상스러운 일을 상스럽게 보이지 않게 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스스로에게조차 체면을 차리는” 릴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실제로 마주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릴리가 흥조를 띄는 순간들이다. 커스티 셀볼드(Kirsti Sellevold)에 의하면, “어리고 순수한 소녀처럼 반응하고, 그녀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위해서 흥조를 활용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바꾸는 능력”(the ability to continue to react like a young innocent girl, and to exploit the blush to enhance her charm, to turn it to her advantage; 94)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력을 잃고, “릴리는 잘못된 때에 얼굴을 붉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다.”(she blushes at the wrong time, thus laying herself open to exploitation by others;

94) 릴리가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힐” 뿐만 아니라, “잘못된 때에도” 얼굴을 붉히는 것이 결국 릴리를 사교계에서 취약하게 만든다는 셸볼드의 주장에 더 하자면, 릴리의 특이한 점은 스스로 얼굴을 붉히는 일에 대해서 얼굴을 붉힌다는 것이다.

릴리는 사교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히는 능력”에 통달했으면서도, 자신이 애써서 결혼할 만한 여성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행 자체를 부끄럽게 느낀다. 소설 초반, 릴리가 그라이스에게 열심히 ‘작업’ 중일 때, 버사가 그녀에게 담배를 요청하는 장면은 릴리가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한 지속적으로 느껴야만 하는 부끄러움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간쯤이라면 담배 한 개비도 안 남기고 다 피워버렸겠지. 안 그래, 릴리?” 그녀는 애처롭게 덧붙였다.

바트 양은 그라이스 씨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입술은 담배로 더럽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버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릴리는 큰 소리를 치면서도, 로렌스 셸든의 집에 잔뜩 챙겨놓은 담배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왜 그래? 너 담배 안 피우니? 언제부터 끊은 거야? 뭐라고? 내가 한번도 … 그럼, 그라이스 씨도 담배가 없으신가요? 물론 그러시겠죠. 내 정신 좀 봐. 바보 같기는…. 잘 알겠어요.”

도식 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여행용 쿠션 위로 몸을 기대었다. 그 미소를 보며, 릴리는 자기 옆에 빈자리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And at this hour of the day I don't suppose you've a single one left, have you, Lily?” she plaintively concluded.

Miss Bart caught the startled glance of Mr. Percy Gryce, whose own lips were never defiled by tobacco.

“What an absurd question, Bertha!” she exclaimed, *blushing* at the thought of the store she had laid in at Lawrence Selden's.

“Why, don't you smoke? Since when have you given up? What – you never – And you don't either, Mr. Gryce? Ah, of course – how stupid of me – I understand.”

And Mrs. Dorset leaned back against her travelling cushions with

a smile which made Lily wish there had been no vacant seat beside her own; 24; 필자 강조)

릴리의 적수인 버사는 릴리가 그라이스 옆에 있을 때 담배를 요청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릴리에 대한 그라이스의 인상을 ‘결혼할만하지 않은 여성’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한 방이다. “잔뜩 챙겨놓을” 정도로 좋아하는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여성인 척해야 하는 순간, 릴리는 자신의 얼굴에 떠오른 홍조를 숨길 수 없다. 이 순간 붉어진 얼굴은 릴리가 의도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저 연기일 뿐이라는 사실이 들통 났을 때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표식이다.

결국, 릴리가 자꾸 결혼의 문턱에서 기회를 놓치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골드 디저’가 되는 이유는 “알맞은 때에만” 적절하게 홍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나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결혼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여성상을 연기해야 하는 순간에 다른 의미로 얼굴을 붉히기 때문이다. 릴리가 피셔 부인이나 로즈데일과 가장 다른 점은 그녀가 자신이 연기해야 하는 정체성과 진짜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철면피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정체성은 수행을 통해서 구성되며 허구 뒤에 있는 ‘진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로즈데일(혹은 해리슨-카안과 같은 구성주의적 입장의 비평가들)과는 달리, 릴리는 ‘진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착하고, 진실 이면에 다른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진실과 허구의 양면적인 관계를 부정하며, 그 둘을 매끄럽게 단 하나의 ‘진실’로 통합하고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릴리의 환상이다. 그러나 버사가 담배를 요청하는 순간, 릴리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연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말로는 소리치면서도, 릴리의 얼굴은 감출 수 없이 붉어지기 때문이다. 버사의 공격과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홍조로 인해서, 그녀가 치밀한 노력을 들여서 수행하고 있던 결혼할 만한 여성의 완벽한 이미지라는 매끄러운 표면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 릴리에게 찾아오는, 릴리를 타격하는 정동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말은 바로 ‘수치심’이다. 흥조로 인해서 붉어진 릴리의 얼굴은 수치심의 얼굴이다. 엘스페스 프로빈(Elspeth Probyn)은 수치에 대한 실반 톰킨스(Silvan Tomkins)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치가 자아 감각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톰킨스에 의하면 수치심은 관심이나 즐거움 이후에만, 즉 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난 후에 그것이 사라진 순간에 찾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 상실에 대한 순진한 실망은 자아에 대한 감각을 공격하는 수치심으로 변화한다. 당신이 당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내부의 부분들이 판단을 위해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전시된다”(At that moment the sheer disappointment of loss translates into shame that attacks your sense of self: the entrails of who you thought you were are suddenly displayed for all to judge; Probyn xii). 그라이스가 이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류를 읽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 릴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버사의 “의미심장한 미소”는 그녀가 애써 만들어내고 있는 ‘진실’이 연기와 가장을 통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포즈’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릴리에게 고통스럽게 각인시킨다.⁴⁾

그동안 릴리가 가지고 있던 “자아에 대한 감각”—즉 릴리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켜오고 있었던 “체면”—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했던 환상의 기제가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수치심을 느낀다. 릴리는 담배라고는 입에 대보지도 않은 정숙한 여성을 연기해야만 그라이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피셔 부인의 수법들”에는 무지한 곤궁에 처한 순진한 소녀를 연기해야만 트레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릴리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배역들을 애써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녀가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장 고상한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일인 그런 환

4) 19세기 사회에서 이러한 수치심은 상당 부분 젠더화되어있다. 버사와 피셔 부인 등 사교계 내의 로맨스 시장에서 여성의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여성들은 릴리가 느끼는 수치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셸든과 트레너를 포함한 남성 인물들(심지어는 릴리를 애정하는 거티마저도)은 릴리가 어느 부분에서 수치심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경이었다”(what she craved, and really felt herself entitled to, was a situation in which the noblest attitude should also be the easiest; 262).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도 볼 수 있는 릴리의 자기기만과 환상은 그녀가 자신이 애써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들어가는 바로 그 ‘애쓴 노력’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알맞은 때”에 얼굴을 붉혀야만 결혼을 하거나 남성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회에서, 릴리는 그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고 얼굴을 붉힌다. 애써 만들어진 진실의 구성성이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 순간이 부끄러운 것이다. 결혼한 사람들의 불륜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릴리는 거의 혼자서만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녀의 계속되는 “버려진 기회들”과 ‘자발적인 실패’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릴리의 타고난 출신이나 남들보다 더 우월한 도덕성이 아니라, 그녀가 남들이 느끼지 않는 수치심을 혼자서만 느끼기 때문이다. 릴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왜 릴리만이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심에 취약한 인물이 되는 것일까?

3. “그의 망막을 통해 보는 세상”: 셸든과 릴리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릴리가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의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때문이다. 릴리는 정체성을 애써서 연기해야한다는 “상스러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자꾸만 매끄러운 진실을 만들어내려는 릴리를 방해하고, 그녀가 만드는 진실 뒤에 ‘이면’이 있음을 자꾸 상기시키는 존재는 바로 셸든이다. 릴리가 갈구하는 것들이 그녀를 즐겁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셸든에게 릴리가 “당신이 예견하는 제 미래는 참으로 비참하군요!”(What a miserable future you foresee for me!; 71)라고 힐난하자, 셸든은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릴리에게 되묻는다: “그럼 당신 스스로는 그걸 내다보지 못했다는 건가요?”(Well-have you never foreseen it for yourself?; 71) 이러한 질문

은 릴리가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 “일시적인 설렘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영혼이 만들어낸 듯한, 감정의 깊은 우물에서부터 피어오른 홍조였다”(not a blush of excitement but drawn from the deep wells of feeling; it was as if the effort of her spirit had produced it; 71).

여기에서 홍조는 릴리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나, 혹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반사적인 신체적 반응이 아니다. 서술자는 셸든 앞에서 릴리가 보여주는 홍조가 성애적 의미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감정의 깊은 우물에서 피어오른 홍조”는 버사가 담배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어오르는 수치심의 홍조와 그 결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때 릴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을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셸든에게 들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수치스러워하는 듯이 보인다. 릴리는 셸든의 잔인함에 이렇게 항거한다: “만일 당신이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째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것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건가요?”(Why do you make the things I have chosen seem hateful to me, if you have nothing to give me instead?; 72).

많은 비평가들은 이미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셸든이 릴리의 인생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존재가 그녀가 생존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해왔다. 디목은 릴리에 대한 셸든의 “열정적이지 않고, 직설적인 계약의 언어를 구사하는”(so unpassionate, so bluntly contractual) 사랑 역시 교환의 경제 안에 속해있다고 지적하며, 셸든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he will not take “risks”)으로써 자신이 속해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시장의 논리에 사실은 공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786). 조한나 와그너(Johanna M. Wagner) 또한 셸든이 릴리에게서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음으로써 릴리를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하고 싶어 하지만”(fleetingly desires to distinguish Miss Bart from other women through something other than her physical magnificence; 120) 결국은 그녀의 유일성, 독특함을 찾는 데에 실패하고 여성성이라는 “이상”(ideal; 121) 그 자체로 인식함으로써 그녀가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⁵⁾ 와그너는 셸든을 다음과 같

5) 와그너의 논의는 주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주장하는 “살 수 있는 삶”(livable lives)과 “문화적 인식가능성”(cultural intelligibility)에 기대고 있다. 릴리

이 간략히 평가한다: “셀든의 최악인 점들 중 하나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one of the most damning traits about Selden is that he does nothing at all; 129).

반면, 챔피언(H.J.E. Champion)은 오히려 이성애규범적인 “지배적 관습들”(hegemonic practice; 103)에 거부감을 느끼는 릴리에게 ‘진짜로’ 청혼할 생각이 없이 청혼을 흉내 내기만 하며 “이성적인 긴장감만을 즐기는”(flirt; 104) 관계에 있는 셀든은 릴리가 원하는 완벽한 상대의 모습에 들어맞는다고 주장한다. 챔피언은 릴리와 셀든의 관계가 이성애적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유희’(pleasure) 그 자체만을 추구한다는 데에서 그들의 비규범성을 부각하고, 릴리의 귀어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남성은 선택할 수 있는”(a girl must [marry], a man may if he chooses; Wharton, *House* 12) 사회에서 ‘유희’가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버사와 편지를 주고받듯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로맨틱한 관계에 대해서 남성인 셀든은 어느 정도는 용인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릴리의 경우에 그들의 유희가 공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 그 대가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즉, 셀든이 릴리에게 청혼하지 않고 그녀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릴리를 오히려 더 곤궁에 빠뜨리는 일이다. 셀든과 릴리를 둘러싼 추문이 생길수록, 릴리가 결혼 시장에서 가진 ‘상품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셀든은 청혼함으로써 릴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마나로 훌쩍 떠나버리며, 끝까지 릴리를 비롯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상 셀든이 릴리에게 해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릴리에게 청혼을 하지 않거나, 릴리와 관계에 있어서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녀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거나, 혹은 그녀의 독특함을 제대로 알아봐주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의 존재는 릴리가 그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는 여성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구현하며 “초가지적인”(ultra-intelligible; 118)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성성을 구현하고 있는 여성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여성성 그 자체로 취급당한다.

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다. 릴리의 완벽한 “능력”, 혹은 완벽한 여성성의 수행은 그녀가 느끼는 수치심으로 인해 흔들린다. 릴리가 그에게 말했듯이, 만일 셀든이 릴리에게 ‘이 세계’를 벗어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는 그녀의 선택들을 “혐오하게” 혹은 ‘수치스러워 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늘 사회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이는”(he had preserved a certain social detachment; 54) 셀든의 존재는 릴리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세계가 “거대한 황금빛 감옥”(the great gilt cage; 54)으로 느껴지게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이 셀든의 특별한 점”(It was Selden’s distinction that he had never forgotten way out; 55)이며, 릴리가 그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점이다.

릴리는 단순히 ‘저 밖’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트릭스』 세계관의 빨간 약과 같은 셀든을, 릴리는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린다. 그는 “그녀의 시각을 조정하는”(readjusting her vision; 55) 영향력을 행사하며, 릴리의 비극은 “자신이 그의 망막을 통해서 자신의 작은 세상을 살펴보고 있음을 깨닫는”(found herself scanning her little world through his retina; 55) 순간 이미 예견되어 있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녀는 사교계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해오던 완벽한 연기를 지속할 수 없으며, 결혼이라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탈선하게 된다. 릴리가 셀든과 버사의 연서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사를 협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신이 걷고 있는 바로 그 길이 셀든과 이 년 전에 걸었던 길임을 기억해낸다.

이런 불일을 보러 가는 길에 그의 집 앞을 지나게 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갑자기 셀든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시에 이 일에 그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이름을 더럽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비밀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녀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It was strange to find herself passing his house on such an errand. She seemed suddenly to see her action as he would see it-and the fact of

his own connection with it, the fact that, to attain her end, she must trade on his name, and profit by a secret of his past, chilled her blood *with shame*; 304; 필자 강조)

만일, 버사 도식의 집으로 가는 길을 릴리가 걸어가지 않았고, 셸든의 집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편지를 활용할 수 있었을까? 혹은, 릴리가 손에 넣은 버사의 편지가 셸든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편지였어도 릴리는 편지를 불태웠을까? 만일 릴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했다면, 그녀는 그 편지가 누구의 편지였더라도 진즉에 없애버렸어야 한다. 또한, 셸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보기에, 이 장면에서 오히려 부각되는 것은 셸든을 향한 사랑이나 셸든 자체보다도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수치심”이다. 릴리는 그녀의 세상과 그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을 천박하고 갑갑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셸든의 눈으로” 스스로를 응시한다. 릴리를 궁극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스스로는 [절망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느냐”는 셸든의 직접적인 말보다도,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즉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그 결과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게 만드는 힘이다.

라파엘은 셸든과 릴리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수치심으로 지목하며, 릴리가 셸든에게 수치를 당하는 쪽에 있다고 주장한다: “수치심은 그들이 말하고 느끼는 것들을 억누르고 왜곡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만, 거의 언제나 셸든에게 수치를 당하는 쪽은 릴리이고, 그 반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shame stifling or distorting what they say and feel, limiting their possibilities, but it is almost always Lily who is shamed by Selden and not the reverse; 258). 그러나 릴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셸든의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삶이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고 묻는 셸든에게 반박했던 것처럼, 오히려 셸든이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를 계몽할 수 있는 남성의 보편적인 권리”(the universal right of a man to enlighten a woman when he sees her unconsciously placed in a false position; 280)를 주장하며 거티의 삶을 택하라고 강요할 때, 릴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그녀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그의 개입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로 변화”(turned her hurt pride to blind resentment of his interference; 281)며, 그를 맹렬하게 비판한다.

릴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수치심은 라파엘이 가정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 릴리는 셸든이 그녀를 공격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없는 순간에 그의 시각을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수치심을 느낀다. 셸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수치심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나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셸든이 사교계에서 한 발짝 떨어진 태도로 릴리의 불운한 미래를 예견하지 않았더라면, 역설적으로 그녀는 셸든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릴리는 자신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보게 만드는 셸든을,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

4. 수치심을 사랑/수행하기

아마도 『기쁨의 집』에서 셸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셸든이 릴리에게 해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답을 했지만, 이 글에서는 릴리는 셸든의 시선을 내면화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그녀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다시 사교계로 복귀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도 좌절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훨씬 더 답하기 어렵고,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남아있는 또 다른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릴리는 셸든을 끝까지 사랑하는가?

이에 대해 와그너는 “결국은 릴리가 셸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이다”(In the end it is unfortunate that Lily did not keep up her guard against Selden; 129)라고 간단히 정리한다. 다이앤 챔버스(Dianne L. Chambers) 또한 “릴리는 사회나 도덕성을 위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로렌스 셸든을 잘못 읽기 때문에 죽는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정과 감정이 있다고 간주한다”(Lily dies not because she is guilty of some transgression against society or

morality but because she misreads Lawrence Selden. She attributes passion and feeling to a man who values detachment above all other things; 63)고 평가한다. 릴리가 셸든을 사랑한 것은 결국은 그녀의 목숨을 대가로 치를 만한 거대하고도 안타까운 실수였던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 나는 셸든이 릴리에게 ‘맞지 않는’ 남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릴리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랑을 어리석은 ‘무지’, ‘판단 실수’, 혹은 유감스럽고 처참한 ‘실패’라고 축소하고 싶지 않다. 잔인하게도, 워튼은 릴리에게 가장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릴리가 가장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릴리가 죽기 전날 밤 (‘우연히’ 마주치는 네티를 제외하고) 셸든을 그녀의 마지막 청자로 만들고 있다. 셸든과 릴리의 마지막 대화는 수많은 의문들을 자아낸다. 릴리가 셸든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장면에서 릴리가 꼭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일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와 수잔 구바(Susan Gubar), 챔버스는 모두 릴리와 셸든의 마지막 대화를 실패한 소통으로 치부한다. 그들에게 릴리는 숙녀다운 예의범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여성이거나, 혹은 자신을 표현할 언어조차 찾지 못한 여성이다. 셸든의 아파트에 들어온 릴리는 떠나기 전 그에게 자신을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우화로만 말할 수 있으며,”(can only speak in parables he is totally unable to comprehend) “심지어는 눈물, 초췌함, 포기의 제스처와 같은 몸짓들”(Even the body language of her tears, her emaciation, and her renunciatory gestures) 또한 그에게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실패한다(Showalter 136). 릴리는 “그녀 스스로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Lily is unable to speak because she has never found a language by which she could narrate her own story; Chambers 64) 릴리는 살아있는 동안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릴리의 죽은 몸”(Lily’s dead body; Gubar 81),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여성의 시체만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든 단어”(the word which made all clear; Wharton, *House* 329)로 작동한다.

릴리는 셸든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자 하지만, 그녀의 생각처럼 “말들은

더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the words would not come more clearly; 307). 그러나 분명히 릴리는 “자신이 겉보기에 몰락한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그를 떠날 수 없는”(she could not leave him without trying to make him understand that she had saved herself whole from the seeming ruin of her life; 307) 기분을 느낀다. 릴리는 모자 수선공으로 일을 배우기까지 하며 사교계로의 복귀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를 몰락으로부터 지켜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셸든의 조언들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며 감사인사를 표한다: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벨로몬트에서 당신이 제게 했던 말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때로는 그 기억들로부터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 말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 정말로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어요”(I wanted to tell you that I have never forgotten the things you said to me at Bellomont, and that sometimes—sometimes when I seemed farthest from remembering them—they have helped me, and kept me from mistakes; kept me from really becoming what many people have thought me; 307).

릴리가 셸든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 혹은 둘 사이의 상황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변호이며, (더 놀랍게도) 셸든의 공이 컸다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데에 주목할 만하다.

어떤 여자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나는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꼭 필요했어요. 아마도 거대한 유혹은 물리쳤을지라도, 사소한 유혹들은 계속해서 나를 끌어내렸어요. 그때 나는 기억했어요. 그런 삶은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요. 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수치스러웠어요. 그게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일이에요. 그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구요. 난 당신에게 내가 언제나 기억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는 것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Some women are strong enough to be good by themselves, but I

needed the help of your belief in me. Perhaps I might have resisted a great temptation, but the little ones would have pulled me down. And then I remembered—I remembered your saying that such a life could never satisfy me; and I was *ashamed* to admit to myself it could. That is what you did for me—that is what I wanted to thank you for. I wanted to tell you that I have always remembered; and that I have tried—tried hard . . . ; 208)

릴리는 스스로 “인정하기가 수치스러웠던” 사실, 즉 그녀가 원하는 인생이 사실은 그녀를 정말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셸든이 대신 말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고, “겉보기에 몰락한 인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다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 이 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릴리는 끝까지 셸든의 영향력이 해로웠음을 모르는 것일까?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그녀가 완전한 실패와 추락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내는 환상의 기제, 말하자면 릴리의 ‘정신승리’인 것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이 장면에서 워튼이 릴리의 일장연설을 어리석은 무지나 미숙함, 혹은 자신의 과오와 패배를 덮어두려는 허영심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몹시 공을 들인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연설에서 릴리는 비록 유창하고 수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그녀를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다. 릴리가 셸든에게 털어놓는 마지막 고백은 수치심과 자아감각, 나아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셸든에게 그동안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기 수치스러워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릴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얼굴을 붉히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나타내던 릴리는 처음으로 “수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한다. 동시에, 릴리는 셸든의 존재로 인해서, “그의 망막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느끼기 시작한 수치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자긍심(pride)을 표현한다. 이 모습은 수치심과 자긍심이 자아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릴리는 수치심을 가리거나 수치심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수치심을 극복했으며 그로 인해 자긍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수치심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렇

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큰 수치심을 느끼는 도중에 릴리는 자궁심을 함께 느끼고, 표현한다.

프로빈은 수치심이 자아 감각을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수치심은 늘 “느낌, 감정, 정동의 모호한 상태”(ambiguous state of feeling, emotion, and affect; xii)라고 정의한다. 톰킨스의 분석은 수치심을 “더 많은 관심을 향해서 움직이거나 부끄러움으로 다시 물러나는 것 사이의 경계 혹은 날카로운 분리선”(the fine line or border between moving forward into more interest or falling back into humiliation; xii)의 상태로 보게끔 만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치심은 단순히 부정적 정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Shame in this way is positive in its self-evaluative role; it can even be self-transforming; xii).

이브 세즈윅(Eve Sedgwick) 또한 수치심이 가지는 “이중적인 움직임”(double movement; 36)에 주목한다. 수치심은 개인이 어떠한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개체화를 향해”(toward painful individuation)있으면서도, 행위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소통”(communication)의 제스처와 신호들을 계속 보낸다는 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관계성을 향해”(toward uncontrollable relationality) 있는 독특한 정동이다(36-37). 즉, 수치심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생각한 기존의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본질에 안정적으로 들러붙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장소”(it is the place where identity is most securely attached to essences, but rather that it is the place where the *question* of identity arises most originally and most relationally; 37)이다.

기존의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들으로써 새로운 자기인식이 생기는 장으로서의 수치심 자체를 세즈윅은 “연극적 수행”(theatrical performance)으로 명명하며, 이분법적인 구분과 경계에 “없어진” 정동의 위치성을 강조한다.

톰킨스가 가장 잘 설명하듯이, 수치심은 스스로를 지우고, 가리키고 투사하고, 스스로의 피부를 바깥으로 뒤집는다. 수치심과 자긍심, 수치심과 존엄, 수치심과 자기 전시, 수치심과 노출증은 같은 장갑의 서로 다른 심이다. 결국 말하자면 수치심—변화를 일으키는 수치심—은 수행이다. 연극적인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수행은 수치심의 결과나 그것을 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이상을 수치심에 끼워 넣는다. 수치심은 내향과 외향, 몰입과 연극성, 그리고 수행성과—수행성 사이의 경계에 얽어진 정동이다.

As best described by Tomkins, shame effaces itself; shame points and projects; shame turns itself skin side out; shame and pride, shame and dignity, shame and self-display, shame and exhibitionism are different interlinings of the same glove. Shame, it might finally be said, transformational shame, is performance. I mean theatrical performance. Performance interlines shame as more than just its result or a way of warding it off, though importantly it is those things. Shame is the affect that mantles the threshold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between absorption and theatricality, between performativity and—performativity. (38)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자 하고, 셸든에게 이것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릴리의 시도는 수치심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릴리가 셸든의 존재로 인해서, 셸든의 시선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느꼈던 수치심은 릴리를 부끄럽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킨 자긍심(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었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셸든에게 다시 전달하고 싶도록 만든다.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릴리의 고백은 ‘수치심에 대한’ 고백이자 동시에 ‘수치스러운’ 고백이 된다.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눈물,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며 손끝을 스친 편지가 불러일으키는 흥조는 “입안에서 맴돌던 말들을 사라지게”(the words died on her lips; 308) 만들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몸의 반사적인 반응들은 쇼월터나 챔버스의 지적대로 릴리의 자기표현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치심의 언어, 수치심의 수행을 완성한다.

그러나 릴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수치심이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수치심”(transformational shame; Sedgwick 38)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은 여기에서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프

로빈이 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워튼의 소설이 수치심에 대한 정동 이론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관점은 수치심이 일으키는 ‘변화’를 서술하는 문학적 언어이다. 릴리와 셸든의 대화 장면에서 수치심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릴리의 정체성은 탄생이나 재탄생이라는 흔한 메타포가 아니라 ‘철회된 작별’이라는 독특한 언어로 서술된다. 릴리는 셸든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There is someone I must say goodbye to)며, “당신이 알던 릴리 바트”(the Lily Bart you knew)를 맡기고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309). 그러나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릴리는 셸든의 손에 다른 손을 포갠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처럼 엄숙하게 서로를 마주보았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죽어버린 뭔가가 놓여 있었다. 셸든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랑을 릴리가 죽여 버렸고, 더 이상 되살려 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살아있기도 했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릴리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셸든의 사랑에 의해서 불타오른 사랑, 그에 대한 릴리의 영혼의 열정이었다.

그 불빛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떨어져나갔다. 릴리는 이제 옛날의 자아를 그의 곁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자아는 셸든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것일 수밖에 없었다. (She laid her other hand on his, and they looked at each other with a kind of solemnity, as though they stood in the presence of death. Something in truth lay dead between them—the love she had killed in him and could no longer call to life. But something lived between them also, and leaped up in her like an imperishable flame: it was the love his love had kindled, the passion of her soul for his.

In its light everything else dwindled and fell away from her. She understood now that she could not go forth and leave her old self with him: that self must indeed live on in his presence, but it must still continue to be hers; 309)

그녀가 남겨두고 가기로 했던 “옛날의 자아”, “셸든이 알고 있던 릴리 바트”는 어떤 릴리 바트일까? 아마도 편지를 이용하고 사교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릴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결

심하는 듯 보인다. 피서 부인처럼 ‘철면피’가 되어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이 때 릴리는 수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과 작별을 고하며 셸든에게 맡겨둔다. 이 때 릴리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는 듯하다. 그러나 셸든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릴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이미 죽어버린” 셸든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릴리의 사랑 사이에서,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에서 그녀는 “옛날의 자아”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릴리가 수치심과 작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도 셸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작별을 철회하는 모습은 그녀가 셸든 뿐만이 아니라—혹은 셸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자신의 수치심을 사랑하고, 다시 끌어안는 모습이다. 이것이 “자기 평가”와 “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릴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릴리가 마지막에 편지를 없애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셸든의 존재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것이어야만 하는” 수치심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치심을 없애버리고, 극복할 수도 없지만, 그것과 작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교계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수치심을 버리는 것이라면, 릴리는 기꺼이 그 기회를 제 손으로 버려버리며, 수치심을 자신의 온전한 일부로서 지켜냄과 동시에 릴리는 사교계의 잔인함으로부터 셸든을 보호하기도 한다.

5. 나가며: 수치심과 생존, 그리고 읽기의 윤리

릴리가 수치심을 다시금 끌어안아서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하더라도, 그녀가 사교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쁨의 집』의 안타까운 역설이다. 새로운 정체성은 프로빈의 주장대로 마냥 “긍정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으며, 수치심이 정말로 ‘긍정적인’ 정동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워튼의 훌륭한 능력 중 하나는 독자로 하여금 “만일…했더라면”(If only)이라는 가정을 하게끔 만든다는 점이다. 만일 릴리가 벨로몬트에서 셸든과 함께 있는 대신, 그 때 그라이스를 만났더라면… 만일 로즈데일이 구혼했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만일 릴리가 트레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서 셸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했더라면... 만일 릴리가 죽기 전이라도 거티를 찾아갔었다면... 그랬다면 그녀는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이러한 선택들이 그녀에게 ‘불가능한’ 선택들이라는 것이 소설의 가장 절망적인 점이자, 한편으로는 릴리의 서사를 성립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릴리는 그라이스나 로즈데일과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하지 않고 거티와 함께 ‘심지어는 거티처럼’ 살 수도 없는 인물이다. 릴리는 끝까지 셸든을 사랑하며, 그녀를 사교계에서 살게 만들 수 있었던 편지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없애버린다.

릴리 바트를 읽는 핵심은 바로 릴리가 그런 여성 인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릴리의 선택들과 열망들은 소설의 안과 밖에서 오랫동안 왜곡되어 읽혀왔다. 트레너는 릴리를 처벌하려고 했으며, 로즈데일은 그녀가 수치스러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셸든은 릴리를 가르치려 들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 릴리를 젠더 수행의 영웅으로 보는 비평가들조차 릴리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허구’라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러워한다는 점을 쉽게 망각한다. 많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릴리의 사랑과 선택을 무지, 실수나 실패로 본다는 사실 또한 절망적이다.

릴리가 느끼는 수치심과 그녀가 수치심을 ‘수행’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릴리의 선택과 실패, 사랑과 욕망을 피해자화하거나 손쉽게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것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 라파엘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수치심은 릴리를 실패하고 몰락하게 만들지만은 않는다. 수치심은 그녀의 실패마저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릴리를 릴리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릴리는 얼굴을 붉히는, 수치심의 ‘여주인공’(heroine)이지만, 그녀를 쉽사리 수치심의 ‘포로’(prisoner)나 ‘영웅’(hero)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튼을 비롯해 감성 소설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기울인 19세기의 미국 작가들은 여성 인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수치심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사랑하는 방식—즉, 정체성이 수치심을 통해서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릴리 바트보다 약간 이전에 탄생한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여주인공 올리브 찬슬러(Ol-

ive Chancellor)와 베라나 테런트(Verena Tarrant)가 느꼈던 “스스로의 연약함, 빠른 굴복, 정신 나간 선회에 대한 수치심”(shame for her weakness, her swift surrender, her insane gyration; 321)이나 릴리 바트의 문학적 여동생인 채리티 로열(Charity Royall)이 지켜낸 “수치스럽지만 안정된”(ashamed but secured; Wharton, *Summer* 160) 삶이 보여주듯이,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여성 인물들은 너무나 쉽게 수치심에 노출되고, 수치심을 다루어야만(deal with)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소설 내에서 삶과 죽음이 릴리와 다른 여성 인물들의 운명을 갈라놓기는 하지만, 수치심은 공통적으로 이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에 깊이 개입한다.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방식과 수행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읽고, 목격하는 독자의 윤리를 계속해서 요청한다.

참고문헌

- Chambers, Dianne L. *Feminist Readings of Edith Wharton: From Silence to Speech*. Palgrave MacMillan, 2009.
- Champion, H. J. E. “‘Hold Me, Gerty, Hold Me’: Lily Bart’s Queer Desire.” *Edith Wharton Review*, vol. 35, no. 2, Oct. 2019, pp. 96-118.
- Dimock, Wai-Chee. “Debasing Exchange: Edith Wharton’s *The House of Mirth*.” *PMLA*, vol. 100, no. 5, Oct. 1985, pp. 783-92.
- Harrison-Kahan, Lori. “‘Queer Myself for Good and All’: *The House of Mirth* and the Fictions of Lily’s Whiteness.” *Legacy*, vol. 21, no. 1, 2004, pp. 34-49.
- James, Henry. *The Bostonians*. Penguin Books, 2001.
- Joslin, Katherine. “Is Lily Gay?” *The House of Mirth*, edited by Janet Beer et al., Taylor & Francis, 2007, pp. 96-105.
- Probyn, Elspeth. *Blush: Faces of Shame*. U of Minnesota P, 2005.
- Raphael, Lev. *Edith Wharton’s Prisoners of Shame: A New Perspective on Her Neglected Fiction*. MacMillan, 1991.
- Sedgwick, Eve Kosofsky. *Touching Feelings: Affect, Pedagogy, Performance*. Duke UP, 2003.
- Sellevoid, Kirsti. “On the Borders of the Ostensive: Blushing in Edith Whar-

- ton's *The House of Mirth*." *Reading Beyond the Code: Literature and Relevance Theory*, edited by Terence Cave and Deirdre Wilson, Oxford UP, 2018, pp. 94-110.
- Showalter, Elaine. "The Death of the Lady (Novelist): Wharton's *House of Mirth*." *Representations*, no. 9, Winter 1985, pp. 133-49.
- Slavens, Clarence R. "The Gold Digger as Icon: Exposing Inequity in the Great Depression." *Studies in Popular Culture*, vol. 28, no. 3, Apr. 2006, pp. 71-92.
- Wagner, Johanna M. "The Conventional and the Queer: Lily Bart, an Unlivable Ideal." *SubStance*, vol. 45, no. 1, 2016, pp. 116-39.
- Wharton, Edith. *The House of Mirth*. Penguin Books, 1993.
- _____. *Summer*. Penguin Books, 2019.
- White, Paul. "Reading the Blush." *Configurations*, vol. 24, no. 3, Summer 2016, pp. 281-301.

ABSTRACT

A Blushing Heroine: Feeling and Performing Shame in *The House of Mirth*

Jein Kim

This paper argues that as a particularly gendered affect in 19th century American context, shame plays a crucial role in the self-perception and identity formation of Lily Bart, the heroine of Edith Wharton's *The House of Mirth*, by focusing on why she feels, and more importantly, how she perceives and performs shame.

Lily, a beautiful twenty-nine-year-old lady with financial difficulties, must and desperately struggles to get married, but always discards her opportunity at the very last moment. Her inscrutable failure, which eventually lead to her tragic death, has been a subject of interrogation within and outside the novel. Taking a step back from facile perspective which either victimizes or valorizes Lily's choice or her failure, this paper looks into the ambivalent aspect of Lily's blush as a gendered currency in marriage market and a bodily sign of shame she continuously feels within such economy. In high society where a woman must blush at the right moment and only at such moment, Lily is a peculiar character who blushes at her own blush. Regardless of her extraordinary capability and skills to maneuver men, she feels ashamed about the very struggle and effort she has to put in order to get married.

This paper argues that shame, while being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her failure to marry, is not merely a negative affect but rather becomes a basis of Lily's pride and identity she cherishes about herself.

Shame also explains why Lily loves Lawrence Selden, who not only misconstrues but patronizes her for trying to get married. Lily, at her last speech to Lawrence Selden before she dies, performs shame as her dignity and part of herself she refuses to relinquish at any expense. Lily's performance of shame provides a unique literary language of "withheld goodbye" in demonstrating shame's ambiguous potential that has been discussed within affect theory.

Key Words Edith Wharton, *The House of Mirth*, shame, blush, performance, gender

